

“더 끌면 공멸”…노사 한발씩 양보

금호타이어 임단협 극적 합의 배경

임금동결 대신 생산장려금 지급 수용

과업·법정다툼 등 6개월 가까이 갈 등을 빚었던 금호타이어 임단협 협상이 25일 새벽 극적으로 합의안을 도출했다. 27일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이를 받아들여면 노사 모두 맘 편한 추석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워크아웃·시장신뢰·경영악화 부담=노사는 그동안 신경전 양상으로 치달던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 서로가 한발씩 양보하는 선에서 합의를 이끌어냈다.

노사 모두 갈등의 장기화로 피로가 누적된다. 더 이상 끌어봐야 서로에게 이로울 게 없다는 현실적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일단 노조의 입장에서는 출근 주장했던 기본급 5%와 상여금 200% 확

원이 더 이상 받아들여질 수 없는 위크아웃 현실을 절감하고, 여기에 법원의 행정행위금지처분까지 내려져 뾰족한 투쟁 방법도 찾을 수 없는 한계를 보았다.

사측은 생산 차질에 따른 경영여건 악화와 시장의 신뢰, 회사 이미지 실추 등이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노조는 임금 동결을 받아들이고, 대신 생산장려금 성격으로 일시금 250만원과 1개월치 급여(10월과 11월 급여 평균)의 50% 지급안을 수용했다. 사측이 기준에 제시한 5월 상여금의 150% 지급안과 비교해 종액에서는 큰 변화가 없지만, 정액 일시금 250만원과 급여를 기준으로

한 변동요인(50%)를 병행함으로써 근속연수가 낮은 조합원들에게도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

또 쟁점이 됐던 퇴진금 중간정산도 지난 7월까지 신청한 중간정산 대상자들에게 추석전 중간정산을 실시시

로 하고 지난 2009년, 2010년 금융위기 때 발생한 체불임금 지연여자 원금과 자연손해금을 지금기로 한 회사측의 약속도 노조원들을 설득하는데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회사측이 크게 한발 물러선 것 중에는 그동안 쟁점이 됐던 무쟁의 노사동의 준수 확약서를 받지 않기로 한 것이다. 사측의 협상타결을 위한 의지가 드러난 것으로 평가된다.

◇지역 사회·경제계 “환영”=노사 합동협의안에 대한 조합원들의 수요 여부가 최대 관심사다.

노조는 25~26일 조합원을 대상으로 합동협의안에 대한 설명회를 연내 앞장서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아파트 1층 주민 지하층 주택 활용 허용

주택건설기준 개편안

앞으로 새로 짓는 아파트에서는 설계에 따라 1층 주민이 지하층을 주택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아파트 건설에서 친환경 전자제품 등의 사용을 의무화하고, 획일적으로 규정된 주민공동시설의 구성을 입주자 수요에 맞춰 다양화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국토해양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주택연구원과 함께 25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국감정원 강당에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전면 개편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

다고 밝혔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전면 개정은 1991년 제정 이후 21년 만에 처음이다.

이날 공청회에서 논의한 개편안에 따르면 현재 지하층은 근린생활시설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지만 앞으로 1층 주민이 전용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든 경우에는 해당 가구의 취미나 작업 공간 등 이른바 ‘알파룸’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이로써 선호도가 떨어지는 아파트 1층을 넓고 다양한 공간으로 설계할 수 있게 돼 향후 미분양을 방지하는데 도움을 줄 전망이다. /연합뉴스

전남지역 농·축협 신규직원 100% 지역출신 채용

농협 전남지역본부(본부장 조영조)가 지역 농·축협 정규직 신규직원을 100% 지역 출신으로 채용한다.

농협 전남지역본부는 “청년층 일자리 창출과 지역인재 채용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지역 농·축협 정규직 직원 110명을 채용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채용은 농협 전남지역본부가 주관해 시·군 단위별(축협·품목농협

은 해당 축협 또는 품목농협 단위)로 선발하며 1차 서류전형, 2차 필기시험, 3차 면접 및 신체검사를 거쳐 채용한다.

지원서 접수기간은 28일부터 10월 5일까지이며, 지원자는 본인이 직접 인터넷으로만 접수가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농협 홈페이지 참조(www.nonghyup.com).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25일 오후 광주상공회의소에서 지역 중소기업 대표, 경제 관련 단체 및 기관, 광주시·전남도 관계자 등 경제주체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전남 경제주체 합동 간담회’가 열렸다.

“평동외국인투자지역 분양전환 급하다”

“4년간 동결 임대주택 건축비 인상 절실”

기재부-광주·전남업체 간담회…10여건 수용

의견을 들었다.

윤창열 청자지개발 대표는 “건설사가 연말에 자본금을 2개월 동안 예치(일반건설 12억 원, 전문건설 5억 원)해야 하는데 중소 건

설사는 자본금 확보와 유통상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하경제에서 자금을 빌려오게 되고 이는 가계부채로 쌓여가고 있다”며 “자본금 예치 기간을 축소해 달라”고 건의했다.

신수의 한국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지부 사무처장은 “4년여 동안 동결된 임대주택 표준건축비가 분양주택 기본형 건축비의 70% 수준에 불과한 실정으로, 이는 임대주택의 질을 낮추고 민간 건설사의 임대아파트 공급 중단을 가져오는 등 부작용이 크다”며 임대주택 표준건축비의 속속적인 인상과 정례적인 인상, 고시제도 도입 등을 요청했다.

이 밖에도 친환경 제품 인증 절

차 간소화, 중소 무역업체 무역기금 대출 기준 완화, FTA(자유무역 협정) 원산지 관리시스템 구축비 지원 증대 등의 건의가 이어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광주·전남 지역 기업 현장의 애로와 지역 현안 등 34건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주현환 차관보는 “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 인상은 공감하는 사항이나 서민들이 대부분인 임대주택 수요자 층면에서도 검토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중재할 방안을 검토해 볼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건의한 과제 34건 가운데 공공분야 재정 일자리 확대, 중소기업 청년인턴 제 요건 완화, 도시가스사업의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범위 포함, 전남 조선산업 활성화와 구조 고도화 지원, 자체 쇼핑몰 전통주 통신판매 규제 완화 등 10여 건은 반영돼 개선될 예정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전남 소비심리 꽁꽁 9월 지수 8개월만에 기준치 이하로

소비자들의 경제 상황에 대한 심리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소비자심리 지수(CSI)가 넉달 연속 하락했다. CSI가 8개월 만에 다시 기준치(100) 아래로 내려가면서 광주·전남지역 소비 심리는 갈수록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발표한 ‘2012년 9월 광주·전남지역 소비자자동응답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비자 심리지수가 99로 전달보다 2포인트 내려갔다.

또 가계수입전망CSI는 94로 전달과 같았고 소비자자동전망CSI는 100으로 전달보다 2포인트 하락했다. 불황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지갑을 닫겠다는 의미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코스피지수
1,991.41 (-2.03)
코스닥지수
522.96 (-9.32)
금리 (국고채 3년)
2.82% (+0.01)
원·달러 환율
1,119.30원 (-1.20)

※수치는 전일 종가 기준



25일 광주무역회관에서 열린 ‘2012년 수출입은행 여신지원제도 설명회’에 참가한 지역 중소·중견기업 관계자들이 수출입은행 업무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수출입은행 제공)

광주·전남 수출기업 금융지원 확대

수출입은행 여신지원제도 설명회

한국수출입은행(은행장 김용환)이 25일 오전 광주무역회관에서 광주·전남 50여개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2012년 수출입은행 여신지원제도 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설명회는 수출입은행과 거래가 없던 지방 소재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입은행의 정책·업무를 설명하고 금융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출입은행 본점 자금별 담당책임자가 강사로 나서 하반기 여신지원정

책, 대·중소기업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상생금융제도, 수출중소기업을 위한 금융상품, 수출대금을 조기 회수할 수 있는 외국환 업무 등을 소개했다.

한편 수출입은행은 올해 수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배정된 지원자금이 조기에 소진됨에 따라, 대외 경제상황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에 1조원의 무역금융 자금을 추가로 배정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전남지역 농·축협 신규직원 100% 지역출신 채용

농협 전남지역본부(본부장 조영조)가 지역 농·축협 정규직 신규직원을 100% 지역 출신으로 채용한다.

은 해당 축협 또는 품목농협 단위)로 선발하며 1차 서류전형, 2차 필기시험, 3차 면접 및 신체검사를 거쳐 채용한다.

지원서 접수기간은 28일부터 10월 5일까지이며, 지원자는 본인이 직접 인터넷으로만 접수가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농협 홈페이지 참조(www.nonghyup.com).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국내개발 | 국내생산

특허 제 10-1171252호

NEW **soriQ** 소리큐 음성증폭기 S20
국산 소리큐 음성증폭기 S20

✓TV시청할 때
✓노인성 난청
✓소음성 난청
✓강의들을 때
✓핸드폰 통화할 때
✓대화 · 상담할 때

2012 광주 국제 실버박람회 참가전시
기간: 10. 18(목)~ 10. 20(토) · 장소: 김대중 컨벤션 센터

엠비온 광주 호남지사 | 010-3645-4151, 062)942-9822

태양광발전 주택보급 화소식

농협 1년거치 5년 상환 자가부담 전액융자

한번의 선택으로 30년간 저기요금 걱정을 하지 않고 생활할 수 있습니다.

신청조건

국내산 인증품 모듈로 시공해 드리며 겸수는 한전전기안전공사에서..

- 전기요금 많이 나오는 주택
- 누진세 때문에 걱정되는 주택
- 신축중이거나 신축예정된 주택은 물량부족, 미리접수 하시기 바랍니다.
- 에너지 관리공단 수요공급부족으로 신청을 했는데 태양광 설치를 못하고 있는 주택

주택용 사용량(kwh)	오.금(원)
100	7,010
200	21,230
300	42,370
400	75,270
500	124,340
600	207,470
700	284,480
800	361,490
1000	515,510

상 담 문 의

(주)셈 에너지 광주지점

광주 전남 동북부지역 062-528-3070 019-655-5678
전남 남서부지역 061-727-2371 019-624-2371